



찬양 :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1.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했는지 나눠 보십시오.
2. 구원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3.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눠 봅시다.
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